

건의서

9만여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심으로써 군정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군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산군 의회 10명의 의원일동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다 음

1. '89. 1. 1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됨으로써 약화된 군세회복을 위하여 민과 관이 일치 단결하여 힘찬 전진을 해오던중 지난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고보니 지역주민들의 욕구중대로 의회와 집행기관에 거는 기대가 날로 늘어만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시·군 자치단체간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의적인 경쟁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9만여 군민이 의식구조는 고차원으로 향상되어가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하는 근본목적은 동일한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결과 집행의 과정이 현재로써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서로 타협과 토론으로 최대공약수를 찾는 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서산문화제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격년제로 개최함이 효과적임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 행사 추진계획에 관여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등과 수차례에 걸쳐 비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었을 뿐아니라, 제6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및 '91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 밀도있게 개선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의 의사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처사에 대하여는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바입니다.

금년도 개최하려는 계획에는 협조하겠습니다만, 이 서산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차례 심도있게 거론이 된이상 금년도에 개최하려는 계획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일컨대, 서산시의 문화제라고는 단순히 옥녀제 하나뿐이 없고, 행사의 대부분이 서산군의 것인데, 추진위원장도 계속 서산시 주민중에서 선출되는등 우리군은 주객이 전도된 생색없는 행사를 치루는데 대하여 자존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93년도부터는 9만여 군민의 고유한 민속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서산시와 분리하여 추진하고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992. 10. 9.

건의자

| | |
|-------|-----|
| 서산군의회 | 의장 |
| | 부의장 |
| | 의원 |
| | 의원 |
| | 의원 |